

Mary Carlson 프라이버시 침해, 이용자도 알아야 한다



Mary Carlson
(The Office of the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for B.C., Canada)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실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와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전문기관을 설립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그 궁금증들을 풀어보기로 했다. 참고로 캐나다는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Lobbyists Registration Act'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률을 수행하는 Information and Privacy Commission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 소개하는 Mary Carlson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의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로 활동하고 있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Q Information & Privacy Commissioner라는 전문기관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설립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규정은 1960년대 후반 유럽 위원회가 컴퓨터 기술이 개인적 프라이버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슈로 떠올랐고, 이후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이 제정됐다. 그 뒤를 이어 지난 1977년 인권법(Human Rights Act)에 근거해 프라이버시 담당관 제도가 만들어졌고, 1982년 처음 프라이버시 담당관이 연방 법에 의해 지명됐다. 같은 해 Quebec 주가, 1987년에는 Ontario 주가 이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현재는 모든 주와 지역에서 프라이버시 법을 가지고 있다.

Q 캐나다를 비롯해 영국,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도 프라이버시 커미셔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경험 상, 프라이버시 법을 이행하는 기관이 없다면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를 강제하고, 규제 및 시행하는 담당기관이 있다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알아야

Q 캐나다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달라.

우리가 주목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침해유형을 소개한다면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데이터베이스 상의 부적절한 브라우징,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처분, 모바일 기기와 하드 드라이브의 부적절한 폐기, 기업 내 마련된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위반 여부, 불충분한 혹은 확립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교육,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감사 혹은 규제 부재 등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다.

Q 개인정보보호 혹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적 인식 혹은 각 국가의 문화가 중요하다. 캐나다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어떠한다고 판단하나. 또 그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사례가 있다면.

캐나다인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EKOS라는 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적이 있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강력한 프라이버시 법 적용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압도적인 수의 캐나다인들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정보의 민감성과 관계없이 자신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10명 중 7명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10년 전보다 보호를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 캐나다인들의 3분의 2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향후 10년간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었다.

Q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개인정보의 데이터화가 이뤄지면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안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같은 우려는 경제활동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여러 산업군 중에서도 캐나다 국민들은 보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나다 의학협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1%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들의 주치의에게조차 중요한 건강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후유증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원인이며, 결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온다. Forester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

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이 저하됨에 따라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민들의 절반은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이 충분한 보호 조치와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 국민들은 절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그 숫자가 80%로 뛰어오른다.

프라이버시 이슈는 법적 소송으로 명확하게

Q 한국에서는 최근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결론이 이어졌나.

가장 큰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지난 2007년에 있었다. 이 사건은 TJX(Winners and Home-sense)의 네트워크에 해커들이 침입해 발생한 사건으로, 캐나다인을 비롯해 미국, 푸에르토리코, 영국 그리고 아일랜드인 등 무려 4,500백만명의 신용카드 정보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해커들은 미국 두 곳의 상점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TJX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얻은 후, 이미 2005년 7월과 9월, 그리고 2007년 5월, 정보를 빼내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담당관은 TJX가 적절한 보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번호처럼 그들이 수집할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수집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현재 해커를 체포한 상황이며, 이와 별개로 TJX의 책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Q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기업이 내부 혹은 외부의 불법적인 유출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기업이 책임져야 할 수준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나.

우선 우리와 같은 기관이나 커미셔너는 보상을 명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 그것은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British Columbia 주의 법에 따르면, 기업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았다면 권리를 침해당한 이용자는 그들이 경험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물을 수 있다. 물론 프라이버시 담당관실은 기업의 잘못을 이용자 대신 찾아내기도 하며, 법적 소송 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Q 공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2차, 3차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침해사고 발생 시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확산을 위해 여러 개의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고, 유출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절차는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주고 있다. 명의를 막기 위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서와 신용평가 기관 등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S**